


# 입 사 지 원 서

	성 명	김은지	E - m a i l	rladmswl0216@naver.com
	생 년 월 일	1998.02.16	연 락 처	010.2941.4146
	주 소	충북 충주시 연원1길 35(연수동)		
	포트폴리오	<a href="https://kimeunji2021portfolio.netlify.app/">https://kimeunji2021portfolio.netlify.app/</a>		

## 학력사항

학교명	재학 기간	전공	소재지	학점 및 기타
한국교통대학교	2016.03 - 2020.02	산업경영공학전공	충주시	3.13 / 4.5
충주여자고등학교	2014.03 - 2016.02	자연계열	충주시	

## 교육사항

교육 과정명	교육 기관	교육 내용	교육 기간
디지털 디자인 양성과정	충주직업전문학교	.디지털 디자인- 컴퓨터그래픽,홈페이지 제작, UI/UX디자인,시안디자인 개발/구현, 디자인 프로젝트 및 사후관리, 디자인 개론	2020.11 - 2021.05

## 자격사항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웹 디자인 기능사	2021.04.21	한국산업인력공단			

## 경력사항

회사명	근무 기간	업무 내용	퇴사 사유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1년 8월 20일

작성자 : 김은지 (인)

# 자 기 소 개 서

## 소통을 중시하며 화합하는 팀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소통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은 대학시절부터 쪽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느껴왔습니다. 손님 혹은 사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로 상황을 해결해나간 경험이 많습니다. 적절한 대처는 빠른 상황판단과 빠삭한 눈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청하는 태도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대화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협업이 중요한 웹 퍼블리셔의 직무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사람간의 소통은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또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계획과 끈기로 만드는 확실한 마무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의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충분한 계획은 일에 돌입했을 때 생길 돌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운 계획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갈 때 느끼는 뿌듯함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학원을 다닐 때 연습장에 동그라미를 하나하나 색칠하며 느낀 행복처럼 하루 일과가 끝나고 계획했던 일을 체크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저에게 계획을 세워 끝까지 확실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웠더라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하루에 2L마시기라는 계획처럼 사소한 계획들은 생활하다보면 잊기도 합니다. 의외로 잊어서 완수하지 못하는 계획이 많기 때문에 저는 메모나 알림을 자주 사용하며 계획을 지키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되도록 계획한 것은 모두 이루려고 노력하며 확실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퍼블리싱을 공부하다 보면 새로 생기거나 갱신된 문법들은 주로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식문서를 해석해서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번역기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러 번 다시 읽으며 끝까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서 오타 하나를 발견하는 것,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결국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끈기를 바탕으로 계획과 함께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 열린 생각과 행동력이 있는 신입

저의 포트폴리오는 ‘하늘아래 같은 코드는 없지만 더 좋은 코드는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는 제가 퍼블리싱을 할 때 항상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가독성이 좋거나 간결한 코드처럼 더 좋은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나은 코드를 고민하고 직접 코드를 작성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웹 퍼블리셔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그저 긁어오는 코드가 아닌 스스로 로직을 만들며 실패도 해보고 원하는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 입니다.

입사하여 동료들과 함께 디자인기획에 맞는 퍼블리싱과 나은 코드를 만들고 나아가 더 나은 웹 퍼블리셔가 되고자하는 목표가 있으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력과 열린 생각으로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는 신입입니다.